

'휴일 · 야간 소아 안심 진료' '시민과의 약속 꼭 지킨다'

익산시, 원대병원 응급센터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매일 자정까지 상주

익산시가 '휴일·야간 소아 진료'를 시행한 첫 한 달 동안 100여 명의 아이들이 휴일과 야간에 응급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원광대학교병원 원대병원 응급센터 내 소아 진료 구역에서 휴일 없이 매일 자정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진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원광대병원 소아응급진료구역에 찾은 환아는 모두 159명으로 집계됐고, 이들 중 64%에 달하는 102명은 야간이나 휴일에 방문했다. 특히 익산 시민뿐 아니라 전주와 군산, 충남 등 인접한 지역에서 온 환아도 35% 가량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 기간 소아응급구역에 이용

한 한 아이의 어머니는 "가장 막막하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은 한밤중에 아이가 아플 때인 것 같다"며 "수도권이 아닌 우리 지역에서도 위급 상황에 기댈 수 있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있어 감사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앞서 익산시와 원광대병원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고 안심하고 아이 키우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응급 의료 공백 해소 방안 모색에 나섰다.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 결과 문제 해결의 핵심은 안정적인 의료 인력 지원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원광대병원과 소아 응급 진료 업무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 진료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병원 측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추가 채용을 위

한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원광대병원 측도 소아 진료 구역을 찾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쾌적한 진료환경을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소아 청소년 응급환자가 언제든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력 확충과 국민 예산 지원에 대한 지속적 건의 등 응급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익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원광대병원 휴일·야간 소아 응급 진료가 아니었다면 100명 넘는 소아 환자들이 위급한 상황에 제때 진료를 받기 어려웠을 수 있었다"며 "묵묵히 현장을 지켜주는 의료진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차질 없는 지역 응급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기초단체장 공약이행도 평가서 4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익산시가 시민과의 약속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하는 최우수 자치단체로 인정받았다.

시는 (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4년 연속 SA(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90여 226개 시군구청장의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자료 등을 모니터링해 분석한 결과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에서 분석한 1차 평가와 모니터링 결과 지역별 상황에 대한 지자체 소명자료 2차 평가 등 엄정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거쳤다.

평가항목은 △공약이행완료 분야 △2023년 목표달성 분야 △추진소통 분야 △협소통 분야 △일치도 분야로 익산시는 5개 평가항목의 총점이 83점을 넘어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정례회를 익산시장 주재로 공약사업 보고회를 진행해 92개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해 왔다.

아울러 시민배심위원단을 구성해 공약사업에 대한 조정 과정과 이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 과정 등을 거치며, 배심위원단이 제안한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시민들의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냈다.

익산시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위해 총 92건의 공약 중 완료 15건, 정상추진 67건으로 전체 공약 중 89%를 완료 또는 정상 추진했다.

민선8기인 2020년까지 공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시민배심원제 지속 운영 등 책임행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정례회 익산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상반기 정례회 개최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가 11일 상반기 정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제9기를 맞는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지난 4월 27일 발대식 개최 후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본격적인 첫 활동으로서 상반기 정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상반기 정례회는 △어린이·청소년 의원에겐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1부 아카데미 활동과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모의의회 체험을 하는 2부 본회의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1부에서는 '국제아동인권법'을 주제로 특강을 △2부에서는 의장·부의장 선거, 교육·복지·안전 3개 상임위원회의 위원 배정, 상임위원장 선출과 서기 호선 등 안건을 처리하였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한마음축제 열려

2024년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한마음축제가 11일 군산 금강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주관하는 2024년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한마음축제는 아동 및 종사자 등 1,200여명이 참여했고, 아이들은 드넓은 축구장에서 마음껏 뛰놀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각자 4개의 팀을 이루어 △행운의 α퀴즈 △단체출발기 △응원전 △대형 튜브 옮기기/달리기 등의 다양한 체육활동이 진행됐다.

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 최현주 회장은 "아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모습을 보니 기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의료원, 우수 의료진 대거 영입

외과·치과·신경외과·안과 등 9개 분야... 전문성 강화

군산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산의료원이 의료진을 대거 영입하고 전문성 강화를 나섰다.

특히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올해 들어 12명의 우수한 의료진을 영입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영입한 주요 진료과는 외과, 치과, 신경외과, 안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미취학

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미취학 증의학과 등 9개 분야이다. 이 중에서 외과, 치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는 장년 교수 의료진의 영입을 통해 전문 진료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각 분야에 새로 합류한 의료진은 대학병원 근무와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환자에게 안전하고 더욱더 전문성 높은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응급센터도 전담 의료 인력의 적절성을 높이고 24시간 응급의료 진료 체계 강화를 위해 응급의학과 4명의 의료진이 새롭게 합류했다. 이제 군산의료원은 7명의 응급의료 전문가가 응급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군산의료원만의 전문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진의 협업을 통한 특성과 전문클리닉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나서

군산시가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일제 단속은 행안부 주관 전국 지자체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민·관 합동단속반 3개 조를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가맹점 결제 데이터와 주민신고 접수 등을 통해 부정유통 의심 거래를 추출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영위 행위(사행·유형업소, 대규모 점포 등)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 될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정 이득 환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심각한 부정유통이 적발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공적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공모 선정... 국비 확보

익산시가 공적 옥외광고물 개선을 위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주관하는 공적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에서 2개 자치단체만 지원하는 것으로 익산시는 행정안전부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옥외광고센터에 타당성 및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운영하는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확보해 적은 시비 부담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사업 대상은 황등 간판개선사업 지구 내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황등시장 등 공공기관 건립이다.

기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2억 9,250만 원을 투입해 전면간판, 현수막 게시대, 전광판, 아치형 간판, 홍보 안내판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2022년 공모 사업 선정으로

기금 3억 원을 확보해 완료한 황등면 1.2km 구간 간판개선사업에 이어 공공기관 간판 정비로 황등면이 산뜻하게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례회 익산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좋은 성과물이 나왔다"며 "깨끗한 거리문화 조성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공공개시시설 확충사업 약 1억 원,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3억 원, 동산동 등 천로 간판 개선사업 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마당 축제' 성료

전북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협회장 박실하)는 전북지역 30개 주간보호시설과 함께 종사자와 이용인이 함께 어울리는 '한마당 축제'를 지난 10일 개최했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한 한마당 축제는 600여 명의 주간보호시설 이용인과 종사자가 함께 화합의 장을 만들었으며, 이리신광교회 체육관에서 진행됐다.

식전 축하공연으로 전주시 정다운주간보호시설의 벨리댄스, 익산시 한마음주간보호시설의 댄스스포츠 공연이 진행돼 축제의 막을 열었다.

이어지는 기념식에서는 개회선언, 장애인 복지 증진 유공자 포함 내빈 축하 순으로 진행됐다. 중식 이후 진행



된 행사에서는 레크리에이션 축하공연, 댄스퍼티 등의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이 함께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박실하 협회장은 "전북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인들과 종사자들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마련돼 아주 뜻깊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